

조선. 1400년도. 달이 밝은 어느 늦은 밤. 이부자리 위에 누운 한 남자는 잠에 들지 못한 채 몸을 뒤척이고 있다.

‘흐음, 요즘 들어서 전하의 몸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니... 이를 어쩔단 말인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그는 바로 조선의 임금을 모시고 있는 김의원이다. 그가 미세한 달빛만이 들어오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몸이 많이 약해진 임금 걱정 때문이었다.

‘전하의 상태를 밤낮으로 꾸준히 살펴보고는 있으나, 나 하나로는 많이 부족한 것을...’

잠자리에 누운지 한참이 지나고서야 그는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가 눈을 감자마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조선 바닥을 밝게 빛내주던 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푸르른빛은 붉은빛으로 변해가고, 검은 구름떼들이 달을 집어삼켰으며, 창호지에 새끼손톱만한 구멍 사이로 들어오던 달빛은 그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다. 이상하게도 매일 아침 울던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살짝 눈을 뜬 김의원은 자신이 누워있던 낯선 환경에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제저녁 자신이 덮고 자던 꽃자수가 박힌 이불은 사라지고 처음 보는 마룻바닥에 누워있는 김의원. 그의 주변에는 조선시대에는 볼 수 없는 이상한 물건들만 가득했다.

“아아, 어지러워라... 이... 이... 이곳은 대체 어디인가?!”

“현재 위치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니다.”

대한민국...? 그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는 김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자신에게 말을 건 사람이 누구인지 한참이나 둘러보았으나, 주변에 사람은 없었다. 이상함을 느낀 김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말을 걸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대체 무엇ियो.”

“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에 있는 나라로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BC 108년까지 존재했습니다... 이후 조선이 건립되어 근대까지 이어졌으나, 35년의 일제강점기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뒤 남북으로 나뉘어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란 말인가. 여보시오. 거기 대체 누구시오. 나는 임금을 모시는 김의원이라 하오. 당신은 누구신데 얼굴을 보이지 않은 채 말만 하신단 말ियो.”

“김의원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따라 한참이나 주위를 서성이다 보니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은 아주 작은 물체였다. 그 물체는 김의원의 손바닥만 했는데 김의원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다.

‘내가 귀신에게 홀린 것인가. 대체 이 이상한 물건에서 왜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인가.’

“여보시오. 거기는 어떻게 들어갔단 말시오. 놓치지 말고 얼른 나오시오.”

“김의원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새로운 단어를 알려주세요.”

놀라서 토끼 눈을 한 김의원은 작은 물체에 얼굴을 들이밀고는 한참을 훑어보다가 자신의 손을 물건에 갖다 대었더니 온갖 색상의 불빛이 그의 얼굴과 그의 주변을 비추었다. 그러고선,

“안녕하세요. 김의원님. 의원님의 건강 지킴이 ‘건강이’입니다. 건강 모드를 실행하겠습니다.

“건...강 지킴이...?”

위이이이잉-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의 소리를 내던 작은 물체는 형광색색 쏘던 빛들이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김의원의 몸 형태를 따라 비쳤다. 아아아악. 몇 분 사이에 대체 몇 번을 놀랜 건지. 다시 한번 소리를 내며 뒤로 자빠질뻔한 김의원은 간신히 자세를 바로잡고는 몸이 굳은 채 물체를 뻘뻘 쳐다보았다. 그런 그를 놀리듯이 김의원을 비추던 빛은 어느샌가 사라졌다.

“김의원님의 키 170CM, 체중 65kg, 맥박 ... 피로도 90%입니다. 오늘은 피로도가 많이 쌓였으니 반신욕을 30분 이상하여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 후에 운동이 끝난 뒤에 몸을 담글 수 있도록 물을 받아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의원님의 맞춤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만. 그만하십시오. 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이요.”

“김의원님의 오늘 운동은 스트레칭 10분, 유산소 운동 30분, 무산소 운동 상체 10분, 하체 1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을 보고 서주세요.”

‘앞을 보고 서라고...?’

김의원은 고개를 가웃거린 후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가만히 서있는 그에게 작은 물체는 계속해서 앞을 보고 서라는 말을 하였기에 그것이 말하는 곳을 보고 섰다.

“김의원님, 저를 보고 따라 해주세요.”

앞을 보고 섰더니 아까는 없었던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 놀란 김의원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팔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김의원의 손이 그 사람의 몸을 관통하였다. 으아아아악. 놀라 자빠진 김의원의 입에서는 비명이 나오기 시

작했다.

‘사람도 아닌 것이 사람 형태를 하고 있고, 그림인 거 같으면서도 만져지지 않는 저것은 대체 뭐란 말이오.’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아무래도 저 움직이는 물건에서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귀신에 홀린 것이 분명하다 생각한 김의원은 손으로 눈을 가린 채 잠시 생각을 했으나, 옆에서 자꾸 저를 보고 따라 해주세요.라는 말이 흘러나오자 그래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굴에서도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귀신의 말을 끝이끝대로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팔을 이렇게 저렇게, 목을 돌리기도 하고, 다리를 쭉 펴기도 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김의원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나왔으며, 그의 얼굴과 몸에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람도 아닌 저 요상한 것이 하라는 대로 하자 김의원은 찌뿌둥 하던 몸이 시원해진 느낌이 들었다.

‘참 이상하구나... 몸이 개운해진 느낌이야.’

잠시 앉아서 숨을 고르던 김의원에게 다가온 물건은,

“김의원님, 옷을 벗고 저를 따라와주세요.”라며 김의원을 일으켜 욕실로 데려갔다. 움직이는 것을 따라 간 김의원은 이번에도 역시 그것이 하라는 대로 엄청 큰 흰색의 대야 같은 곳에 담겨 있는 물에 들어갔다. 이상한 곳에 끌려와 엄청난 힘을 소비해서 그런지 긴장으로 가득했던 몸이 풀리면서 노곤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긴장이 풀리자 어젯밤 근심 걱정으로 얼마 자지 못해 피곤했던 김의원은 그대로 잠이 들었다. 30분쯤 지났을까. 눈을 뜬 김의원은 어느덧 차가워진 물에서 빠져나왔다.

‘임금님께서 나를 찾고 계실 텐데... 나를 언제쯤 집으로 돌려보내줄 것인가...’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김의원은 이 이상한 공간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이내 포기를 하고 주저앉았다. 마음은 불안한데 배는 고팠는지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다.

“이보시오. 혹시 남은 먹을 것이 있소? 내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매우 고파서 말이오. 남은 것이 있다면 내게 좀 나누어 줄 수 있겠소?”

“김의원님의 냉장고에는 당근, 파, 양파, 우유, 계란... 등이 있습니다.”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으니... 여보시오. 나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주면 내가 알아서 먹겠소.”

“주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물건을 따라 간 김의원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역시 다 낯선 물건들뿐이었다. 너무 배가 고파진 김의원은 이곳저곳 낯선 것들을 열어보았다. 그러다, 양쪽으로 열어지는 가운데 손잡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냉장고) 이를 잘못 누르자,

“저탄고지 식단을 선택하셨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메뉴를 한 가지 눌러주십시오.”

여기서도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반나절 정도 시간을 보냈다고 이제는 뒤로 자빠지기보다는 신기한 눈을 한 김의원은 소리 나는 것을 이것저것 눌러보았다.

“키토 김밥을 선택하셨습니다. 키토 김밥에 필요한 당근, 계란, 치즈 ...는 여기 있습니다. 김의원님의 냉장고에 없는 치즈, 어묵, 김밥용 김은 주문을 넣었습니다. 10분내로 도착 예정입니다. ”

말을 마친 냉장고에서 이상한 큰 판이 나오더니 당근과 계란 등이 눈앞에 나타났다. 이걸 먹으라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며 그것을 꺼내어 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방금까지만 해도 흰색이었던 탁자에 글씨들이 생겨난 것이다.

“첫 번째, 당근을 씻어 채를 썩니다... 마지막으로 잘 모르겠으면 여기를 눌러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당최 알아들을 수 없었던 김의원은 ‘여기’를 눌러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영상이 끝나자 땡-동- 하는 소리가 들려 김의원은 또다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으로 가자 손잡이 하나가 있는 문이 있었다. 이번엔 무슨 신기한 일이 있을까 하며 손잡이를 열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바닥에는 상자에 담긴 물건들이 있었다. 김의원은 이걸 무엇인가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어 그 물건을 품에 안고 주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흐음... 아까 봤던 것처럼 하면 된다는 것인가.”

놀라운 속도의 습득력을 보여준 김의원은 아까 자신이 본 영상대로 차근차근 해나가자 영상에서 마지막에 나온 음식과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허겁지겁 음식을 먹은 김의원은 배가 불러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낯설고도 놀라운 물건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자, 김의원은 잠이 쏟아졌음을 느꼈고, 이제는 많이 친해진 것 같은 물건에 대고 이야기를 건넸다.

“이보시오. 잠은 어디서 자오?”

“저를 따라오십시오.”

물건을 열심히 따라간 김의원의 눈 앞에는 김의원의 하체까지 오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손으로 살짝 만져보니 폭신평신했던 게 솜이불을 여러 겹 겹쳐 놓은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이곳에 데려다준 것을 보니 여기서 자면 되겠군.’

폭신평신했던 곳에 눕자 잠이 솔솔 쏟아졌다. 가만히 누워있자보니 움직이는 물체가 다시 한번 나를 향해 빛을 보냈다. 아까 무슨 건강 ... 지킴...이라고 했나 그때와 같은 빛이었다.

“김의원님의 맥박은 ... 피로도는 30%입니다. 피로도가 다시 안정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몸의 긴장이 완전히 풀린 채 천장을 보고 누우니 김의원을 향해 쏟아지는 불빛이 그의 눈을 아프게 만들었다.

“아아- 눈이 부셔 잠을 잘 수가 없네. 이곳은 밤이 없는가? 계속 환하기만 한 게 참으로 이상하다. 이상해.”

그의 말이 마치자마자 탁-하고 전등이 꺼졌다. 허 참. 다시 한번 고개를 저으며 허를 찬 김의원은 귀신에 홀렸으나, 참으로 진귀한 장면을 많이 봤다는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다.

꼬끼오- 닭 울음소리와 함께 김의원은 몸을 일으켰다. 주변을 살펴보니 원래 집으로 돌아온 듯했다. 어제 겪었던 일이 무엇에 홀린 것인지, 꿈을 꾸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있는 곳에선 모두 사람이 직접 하던 일을 이상한 것들이 대신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나 같은 의원이 없는데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괴상한 것들이 확인을 해줬다는 것이다. 거기에 그들이 따라하라고 강요했던 행동들도 낯선 행동이었는데 그것을 하고 나니 몸이 아주 개운해졌다.

‘이럴 것이 아니라, 전하께도 이렇게 처방을 내려야겠네.’

금세 임금의 생각으로 김의원의 머릿속이 가득 찼다.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임금에게 처방을 할 생각이었다. 신속하게 입궁할 준비를 한 김의원은 임금에게 그가 했던 행동을 따라 하게 한 다음 임금의 신체를 검사하니, 그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하-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네. 그 요상한 경험 덕분에 전하의 몸 상태도 이렇게나 좋아지다니.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맙소!”